

이재명 이번주 당무 복귀...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 지원

민주당 승리엔 이대표 입지 탄탄 당내 문제에 통합의 메시지 낼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단식 후 유증에 따른 입원 치료를 마치고 당무 복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가 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둘러싼 당내 후폭풍을 어떻게 통합의 동력으로 전환할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종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 대표가 이르면 오는 6일 이전에는 국회로 복귀할 것으로 안다"며 "건강이 아직 회복되진 않았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데 당내 현안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지팡이 없이도 근거리를 걷는 데 무리가 없지만 건강을 완벽히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0월 11일)와 6·7일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이 대표의 당무 복귀를 서두르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기초단체장 보선의 의미를 넘어 수도권 민심을 어느 정도 확인해볼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내년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풍향계가 될 수 있어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자 연휴 첫날인 지난달 28일 이후 이어 이달 1일과 2일에도 강서구를 찾아 김태우 후보를 지원하는가 하면 안철수·권영세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인지도 높은 당내 인사들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민주당은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부터 내리 사흘간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당내 내용과 이재명 대표의 부재로 정치적 압박트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벗어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전체적인 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한 흐름이어서 이 대표의 발걸음에 힘이 실릴 전망"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3일 서울 강서구 화곡역 교차로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3일 서울 강서구 방화사거리에서 서영교 최고위원 등과 함께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승리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불거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갈등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주목된다. 당내에서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친명-비명 진영 간의 내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당분간 관망할 가능성과 함께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관망론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친명계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비명계를 압박, 당을 확실하게 장악한다는 시나리오다.

통합론은 내부 분열을 극복하지 않고는 내년 총선 승리가 쉽지 않다는 논리다. 팬덤 당원들의 체포동의안 가결 징계론을 뒤로하고, 폭넓은 리더십으로 당내 통합과 결집의 동력을 마련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무 복귀를 통해 강력한 통합의 메시지를 낸다면 오히려 징계보다 큰 리더십을 확충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결국 민심의 공감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불구속 기소나 영장 재청구나...검찰, 처리 놓고 고심 거듭

연휴 기간 기각 사유 기록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사건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부터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어느 것 하나 간단한 선택지가 아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추석 연휴 내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

검찰의 선택지로는 우선 혐의를 보강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찰은 비록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도 검찰은 대장동·성남FC 의혹 사건으로 2월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되자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당시처럼 약 한 달간의 보강수사를 거쳐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달 11일 시작되는 법무·검찰 국정감사가 변

수라는 전망도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정치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의 혐의별로 소명 정도에 대해 상이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검찰을 고심하게 만드는 지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오락가락하는 이화영(구속기소) 전 평화부지사의 입장과 관련해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했지만, 지난해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검찰 신문 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 /연합뉴스

“대법원장 공백 안돼” “도덕성도 능력도 없다”...이균용 임명안 공방

여야, 신원식·김행도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며 사법 리스크 공세를 더욱 강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 수사의 무도함이 법원 판단으로 입증됐다'며 총반격에 나섰다.

연휴 이후 대치 정국의 첫 고비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과 사법 정치화가 발생했다며 불만을 표출해온 국민의힘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임명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문희 과장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이번엔 이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영장 기각 후 민주당이 여권을 향해 취한 공세적 태도는 임명동의안 표결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단일대오가 흐트러져 큰 혼란을 치른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내분을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무더기 부결'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실제 당내에서는 '이균용 불가론'이 대세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박용진 의원은 통화에서 "도덕적 인식도 떨어지고, 능력도 없는 후보임이 드러났다"며 "특위 위원들은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의원들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야기할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강경론이 여전히 우세한 분위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

서 채택,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회를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4일이다. 여당은 보고서 채택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5일 열린다. 그러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한 만큼,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 등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쟁점 법안들도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연휴 이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신임 홍익표 원내대표가 각종 사안을 두고 본격적으로 협상을 벌이는 만큼 두 사람이 양보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민생 영수회담 주인공은 나도尹도 아닌 국민”

민주당, 회담 수용 거듭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여당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지는 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생 영수회담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초당적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

다"며 회담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야 당대표 회담부터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도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연일 '뜬금포', '판정 피우기', '방탄'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그러면서 여야 당대표 회담을 하자자는 의도는 무엇인가. 존재감을 키워보려는 김기현 대표의 노력이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가 식구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답변은 시종일관 거부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로 취급하며 피한다"며 "불공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이상90원/일)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문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